

영국 투표 연령 16세로 하향 추진



영국 정부가 18세였던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국 민주주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총선부터 16세와 17세 청소년 약 160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개혁에는 은행 카드를 유권자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정치 기부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개혁을 발표한 안젤라 레이너 부총리는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참여를 높여 사회의 기초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낮은 투표율(59.7%)을 배경으로 투표 연령 하향 공약을 내세웠으며, 현재 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이미 일부 지역 선거에서 16-17세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써 영국은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춘 국가 목록에 합류하게 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약 90%)는 여전히 투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16세가 이미 운전, 취업, 군 복무(부모 동의 시), 세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만큼 투표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세금을 낸다면,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당을 포함한 일부 반대론자들은 16세가 술, 복권 구매, 결혼, 출마 등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성숙도 부족과 정치적 지식 미흡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실제 투표율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16-17세 중 선거가 내일 치러질 경우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이러한 개혁 가능성이 낮지만, 메릴랜드 등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지방선거에서 16-17세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사진=shutterstock

승려들과 성관계 금전 갈취 여성 체포

태국 '미스 골프', 협박용 사진·영상만 8만여 개

태국 경찰이 승려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한 여성을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른 성범죄 및 마약 관련 스캔들로 신뢰를 잃고 있는 태국 불교계에 또다시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태국 경찰은 최근 '미스 골프(Ms Golf)'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성이 최소 9명의 승려와 성관계를 맺은 후 이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했다며, 총 3년 동안 약 3억8,500만 바트(약 1.195만 달러)를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여성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승려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된 사진 및 영상 파일이 8만여 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 6월 중순 방콕의 한 사찰 주지가 갑작스럽게 환속한 사건에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지는 '미스 골프'와 지난 5월 성관계를 맺은 뒤, 여성이 임신했다며 양육비 명목으로 700만 바트(약 22만 달러)를 요구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승복을 벗었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승려가 다수 존재했으며, 이는 '미스 골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한 갈취한 돈 대부분이 인출된 상태이며, 일부는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된 정황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경찰



▲ 태국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미스 골프, 사진=SNS

은 수사를 확대하고 '문란한 행동을 한 승려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한 핫라인도 개설한 상태다.

이번 스캔들로 태국 불교 최고 권위 기관인 상가최고위원회는 즉각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승려 규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도 승려의 계율 위반에 대해 벌금 및 징역형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태국 불교는 수차례의 스캔들로 인해 그 위신이 크게 실추됐다. 2017년, 호화로운 생활로 유명세를 탄 위라폰 속폴 전 승려가 성범죄, 사기,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또 2022년에는 펫차분 주의 한 사찰에서 승려 4명이 마약 단속 중 체포돼 모두 환속하면서 해당 사찰이 사실상 문을 닫기도 했다.

CALI KITCHEN & BATH
HOME RENOVATION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캘리 키친 앤 베스
라팔마에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무료 견적 / 무료 3D 디자인 / 20년 경력

부엌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캐비닛 / 카운터 탑 / 마루 / 타일 / 욕조
샤워 도어 / 창문 / 페인팅 / ADU

5438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714-206-7366
www.calikitchenbath.com
Licensed, Bonded and Insured St. Lic. #1073686

